

애정 전기소설 남성 주인공의 자질 변화와 그 서사적 의미

- 19세기 <절화기담(折花奇談)>·<포의교집(布衣交集)>을 중심으로

임정민*

<차례>

1. 들어가며
2. 남성 주인공의 자질 변화와 그 의미
 - 1) 문재(文才) 상실과 인물의 진지성 결여
 - 2) 미혼(未婚) 상태 이탈과 결연의 진정성 결여
3. 자질 변화로 인한 새로운 관계 양상: 동상이몽의 사랑
4. 19세기 애정 전기소설의 의미 - '불일치' 현상과 여성의 자의식
5. 나가며

<국문초록>

본고는 19세기 애정 전기소설의 대표 작품인 <절화기담>과 <포의교집>에 집중해 이들 작품에 나타난 남성 주인공의 자질 변화와 그 서사적 의미를 고찰한 것이다. 이들 작품의 경우 전대 전기소설의 남성 주인공이 공통적으로 지녔던 '문재(文才)'라는 자질과 '미혼(未婚)'이라는 자질¹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이 자질들이 각각 함의하고 있었던 '인물의 진지성'과 '결연의 진정성'이라는 의미가 완전히 해체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질 변화로 인해 남녀가 서로를 애정의 대상으로서 인식하는 맥락이 달라지게 되면서 동상이몽의 사랑이라는 새로운 관계 양상을 낳게 된다. 남성 주인공은 결연의 대상을 일탈적 유흥의 대상으로 여기는데 반해, 여성 주인공은 결연을 자신들이 처한 폭력으로부터 탈출하려는 하나의 해소과정으로 여기면서 상대방을 진지한 만남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처럼 19세기 작품은 사랑의 대상과 그 방식 등 다양한 층위에서 '불일치' 현상이 반복된다. 한편 여성 주인공은

*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이러한 어긋남 속에서 기존에는 찾아볼 수 없던 이별이라는 선택지를 갖게 된다. 이를 통해 여성의 자의식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주제어 19세기 애정 전기소설, 자질 변화, 인물의 진지성, 결연의 진정성, 불일치 현상, 여성의 자의식

1. 들어가며

전기소설은 고전소설사의 초창기 양식으로 한국 고전소설의 발생과 성립을 논하는 데 있어 빠질 수 없는 장르이다. 따라서 전기소설의 장르적 특성과 그 변천사에 관한 논의는 긴 시간 동안 고소설 연구의 주요한 쟁점이었다. 나말여초의 『수이전』(殊異傳) 일문(逸文), 15세기 김시습의 『금오신화』와 같은 초기 작품들을 통해 전기소설의 장르 특성이 마련된 이후로, 17세기와 18·19세기의 작품들을 그 연장선에서 이해하려는 연구시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소설사적 지위와 맞물려 전기소설의 장르적 지표가 무엇인가에 대한 탐색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고 이를 해명하는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이때 전기소설임을 나타내는 장르적 지표로서 기존의 논의들이 공통적으로 ‘인물형상’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 특징적이다.¹⁾ 기존의 논의에서 전기소설

-
- 1) 전기소설의 장르적 지표를 밝히는 기존 논의들은 ‘인물형상’뿐 아니라 지식인 남성이라는 전기소설의 뚜렷한 작가층, 화려한 한문체와 서정과 서사의 결합이라는 문예적 특성에 초점을 두기도 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본 논의와 관련해 ‘인물형상’에 주목한 연구를 중심으로 기존 논의를 살폈음을 미리 밝혀둔다. 그간의 논의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임형택, 「나말여초의 전기문학」, 『한국한문학연구』 5, 한국한문화회, 1980, 89~104쪽; 신재홍, 「초기 한문소설집의 전기성에 관한 반성적 고찰」, 『관악어문연구』 14,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9, 129~151쪽; 박희병, 「한국고전소설의 발생 및 발전 단계를 둘러싼 몇몇 문제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17, 서울대, 1992, 31~53쪽;

의 인물형상으로 일컬어지는 ‘전기적 인물’의 특성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설에 형상화된 주인공은 시대적 혼란 또는 실제 인물의 역사적 고독을 반영하고 있으며²⁾ 그들은 현실 세계의 질곡과 그러한 질곡에 대한 문제제기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³⁾ 전기적 인물은 서사 내 자신이 체험하는 기이한 경험 앞에서 ‘머뭇거림의 의식’을 보여주며⁴⁾ 외로움을 표상하는 동시에 내면성과 소극성을 지녔다는 특징을 지닌다.⁵⁾ 이들은 세계와 화합하지 못하고 일상세계의 경계선에 위치해 있는 인물로 고독과 내면성을 주요한 속성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⁶⁾ 전기소설의 인물은 문인 지식인이라는 향유층과의 관련 속에서 그들의 원망(願望)을 대신 이뤄주는 존재로 ‘사랑하는’ 양식이 아닌 ‘사랑받는’ 양식⁷⁾을 추구하고 있다.

이때 이들 논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기소설의 장르적 지표로서의 인물형상은 ‘남성 주인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⁸⁾ 이것은 전기소설의 발생과 성립이 문인 지식인으로 대표되는 뚜렷한 작가와

박희병, 「전기적 인간의 미적 특질」, 『민족문화사연구』 7,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회, 1995, 120~140쪽; 김종철, 「傳奇小說의 전개 양상과 그 특성」, 『민족문화연구』 2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5, 31~52쪽; 박일용, 「傳奇系 小說의 양식적 특징과 그 소설사적 변모 양상」, 『민족문화연구』 2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5, 69~91쪽; 윤재민, 「傳奇小說의 인물 성격」, 『민족문화연구』 2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5, 53~67쪽; 윤재민, 「전기소설의 성격」, 『한국한문학연구』 19, 한국한문학회, 1996, 333~367쪽.

2) 임형택(1980), 위의 논문, 98~100쪽.

3) 박일용(1995), 앞의 논문, 82~83쪽.

4) 신재홍(1989), 앞의 논문, 141쪽.

5) 박희병(1992), 앞의 논문, 128~137쪽.

6) 김종철(1995), 앞의 논문, 36쪽.

7) 윤재민(1996), 앞의 논문, 360~361쪽.

8) 물론 이들 논의에서 여성 주인공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 논의는 모두 향유층과 남성 주인공의 동일시를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 주인공은 남성 주인공이 가진 자질을 공유하고 있거나 남성 주인공 욕망의 역투사로서 존재한다. 이것은 다시 한번 ‘남성 주인공의 자질’이 장르적 지표의 중심에 있음을 보여준다.

사대부 남성이라는 특화된 향유층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결국 전기소설에서 ‘남성 주인공의 자질’은 이것으로 인해 전기소설의 서사 문법 내지는 그 미학이 창출되게 된다는 점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그런데 15세기를 지나 17세기의 작품만 해도 ‘남성 주인공의 자질’이 비교적 유지되고 있는데 반해, 19세기 애정 전기소설의 경우 공통된 특질을 찾아보기가 어려워 주목을 요한다.⁹⁾ 특히 이 장르에서 남성 주인공의 자질이 장르 특성인 ‘전기적 인물’의 형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자질의 변화는 주요한 장르적 특질들이 해체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즉 19세기 작품에 나타난 남성 주인공의 변화는 장르 해체과정의 주요한 시작점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 근거해 본고에서는 ‘남성 주인공 자질’이 작품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고 ‘남성 주인공의 자질’을 중심으로 19세기 애정 전기작품을 독해해보고자 한다.¹⁰⁾

이를 위해 본고는 19세기 작품 속 ‘남성 주인공의 자질’을 다시 한번 장르사적 맥락에서 조망해볼 것이다.¹¹⁾ 새로운 양식의 등장은 “역사적 장르

9) 물론 19세기 애정 전기소설의 경우 ‘남성 주인공의 자질’뿐 아니라, 서사 전반의 내용이 전기소설의 장르 문법에서 지나치게 벗어나고 있어 기존 논의들 또한 이러한 새로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주목했다. 본고 또한 19세기 애정 전기소설의 독특한 양상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그간의 연구와 궤를 같이하지만 ‘남성 주인공 자질 변화’를 중심으로 작품에 나타난 새로운 관계를 연속적으로 파악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10) 19세기 작품을 대상으로 ‘남성 주인공’에 주목한 연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논의들은 각각 남성주인공의 입장에서 불륜과 사랑의 의미를 살펴보고, 남성인물을 중심으로 애정전기소설의 흐름을 파악했다. (이유정, 「〈포의교집〉 남성주인공 이생에 관한 연구」, 『한국어와 문화』 12, 한국어문화연구소, 2012, 3~35쪽; 김민정, 「남성인물을 중심으로 본 애정전기소설의 흐름」, 『우리문화연구』 39, 우리문화회, 2013, 41~87쪽.) 그러나 이들 논의는 두 작품에 드러난 남성의식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본 논의의 문제의식과는 결을 달리한다 하겠다.

11) 이러한 문제의식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음의 논의들은 애정 전기소설의 계승과 변용 측면에서 19세기 작품들을 조명하고 있다. (이정원, 「조선조 애정 전기소설

가 문학사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관습과 규범을 발전시키고 변형시키며 재창조”¹²⁾한 결과이다. 따라서 그것이 지닌 의미를 분명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전·이후의 작품들과 맺는 관계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다만 애정 전기소설의 경우 장르의 역사가 매우 긴 탓에 19세기 이전에 해당하는 각 편의 수가 적지 않다. 하여 본고에서 전대의 애정 전기소설의 특질을 상세하게 언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본 논의의 초점은 19세기 작품 속 남성 주인공의 자질 변화와 그 서사적 의미를 탐색하는 데 있으므로 전대의 애정 전기소설을 특질은 각 장의 논의를 진행하는 데 부분적으로 언급하는 것에 만족하고자 한다.

본고의 목적인 19세기 작품 속 남성 주인공의 자질 변화와 그 서사적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먼저 19세기 애정 전기소설로 대표되는 〈절화기담〉과 〈포의교집〉에 나타난 남성 인물의 자질 변화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자질 변화로 인해 ‘전기적 인물’이 가지고 있던 어떤 함의들이 해체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자질 변화로 인해 소설 속에서 어떤 새로운 관계가 생성되는지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19세기 애정 전기소설이 만들어내는 독자적인 서사문법이 무엇이고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추측해볼 것이다.

연구 대상이 되는 〈절화기담〉과 〈포의교집〉은 모두 유일본이다. 이 글에서는 일본 동양문고 소장 〈절화기담〉과 서울대 규장각 소장 〈포의교집〉

의 소설 시학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1~187쪽; 한의승, 「포의교집의 문체와 서사적 특징」, 『어문논총』 41, 한국문학언어학회, 2004, 397~436쪽; 권도경, 「포의교집의 애정 갈등과 비극적 결말의 현실적 의미」, 『조선후기 전기소설사의 전변과 새로운 시각』, 보고사, 2004, 419~457쪽; 이정원, 「포의교집의 서사적 성격-애정전기소설 양식론의 입장에서」, 『어문논집』 36,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8, 297~317쪽.) 여기서는 이들 논의의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전기소설의 중요한 장르적 지표인 ‘남성 주인공의 자질’에 초점을 맞춰 자질의 의미와 자질의 변화로 인한 관계양상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12) 박희병(1995), 앞의 논문, 121쪽.

을 번역, 주석한 『19세기 서울의 사랑-〈절화기담〉·〈포의교집〉』을 대상으로 작품을 분석하였다. 본문에서의 인용은 번역문을 중심으로 하고 원문과 쪽수는 각주로 밝힐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2. 남성 주인공 자질 변화와 그 의미

2장에서는 19세기 작품에서 전대 전기소설의 남성 인물이 가지고 있었던 자질들이 나타나지 않음에 주목해 보려고 한다. 19세기 남성 인물들에게 공통되는 자질 변화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것으로 인해 전기소설의 남성 주인공이 함의하고 있던 서사적 지향성이 해체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1) 문재(文才)의 상실과 인물의 진지성 결여

애정 전기소설에 등장하는 남성 주인공은 모두 문재(文才)를 가진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 타고난 문예적 능력을 보여주는 ‘문재(文才)’는 빼어난 용모와 함께 애정 전기소설 속 남성 주인공이 공통적으로 지닌 자질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¹³⁾ 이때 남성 주인공의 문재(文才)는 단순히 인물을 설명하기 위한 상투적 표현이나, 주인공을 긍정적으로 그려내기 위한 여러 자질 중 하나로 보아서는 안 된다. 전기소설의 향유층, 그로 인한 장르 관습과 연결 지어 볼 때 문재(文才)는 애정 전기소설 남성 주인공의 미적 특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먼저 문재(文才)가 조선 사회가 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자질이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문치주의가 확립되어 있었고 무반보다 문반을 우선했

13) 15세기 작품인 〈이생규장전〉과 〈만복사저포기〉의 경우 서술자를 통해 ‘문재(文才)’라는 자질이 언급되지 않더라도, 남성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고 여성과의 결연에 매개가 되는 삽입시는 그들의 뛰어난 글솜씨와 문예적 취향을 드러내고 있다.

던 조선 사회에서 빼어난 문학적 재능은 가장 이상적인 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이었다.¹⁴⁾ 따라서 문재(文才)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인물이 세상에 나아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입신양명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문재(文才)는 ‘사회적 인정’, ‘세계에서의 쓰임’을 예견하는 능력인 것이다. 따라서 전기소설 속 남성 주인공의 문재(文才)는 향유층인 조선 전기 남성 사대부의 이상(理想)이 함의된 자질로 이해해야 한다.

문재(文才)가 ‘사회적 인정’을 예견하는 이상적 자질이라는 점은 애정 전기소설 남성 주인공이 가진 ‘불우(不遇)’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전기소설에 나타나는 불우(不遇)란 결국 세상에 쓰일만한 역량을 지니고 있음에도 그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문재(文才)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불우(不遇)에 의한 소외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문재(文才)는 전기소설의 주요한 문제의식인 ‘인정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소외와 고독’이라는 미학을 설명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자질이 된다.

전기소설의 향유층은 ‘자신이 바라보는 나’와 ‘세계가 바라보는 나’가 일치하지 않는 데서 오는 부조리를 ‘사랑’이라는 낭만적 사건으로 해소하고자 했다. 전기소설의 남성 주인공은 이미 향유층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진지한 인간 형상으로 파악된다.¹⁵⁾ 이때 전기소설 향유층과 남성 주인공의 동일시를 가능하게 하는 자질이 바로 ‘문재(文才)’인 것이다. 문재(文才)가 지닌 이상성과 필연성이 바로 향유층의 문제의식에서

14) 강상순, 「고소설에서 재자의 형상과 그 변화 양상 - 17세기 소설사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7, 182쪽.

15) 이와 관련해 윤재민의 논의를 주목해 볼 만하다. 윤재민은 전기의 기이함을 지괴의 기이함과 비교하며 전기소설 인물과 작가층의 연관성을 설명한다. 사대부 문인 지식인층에게 지괴의 이야기들은 ‘남’들의 이야기지만, 전기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이고, 따라서 전기소설에는 향유층의 계급적 관점이 적극적으로 각인된다는 것이다. (윤재민(1996), 앞의 논문, 352~354쪽.)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애정 전기소설 속 남성인물의 문재(文才)는 전기소설의 미학과 결부된 인물의 진지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19세기 애정 전기소설의 남성 주인공을 들여다보면 ‘문재(文才)’라는 자질이 사라지고 있다. 소설의 사건이 더 이상 기이한 경험으로 나타나지 않고 현실의 맥락에 놓이면서 애정 전기소설의 큰 변환을 이루었던 17세기의 경우에도, 여전히 문재(文才)는 남성주인공의 자질이었다.¹⁶⁾ 그러나 19세기 소설 〈절화기담〉과 〈포의교집〉에서는 이러한 자질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¹⁷⁾

충청도 지방에 사는 이생(李生)이라는 사람은 좋은 집안 출신의 양반이다. 그러나 재주가 신통치 않아 세상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웠고, 뜻은 컸으나 성실하지 않았다. 나이 마흔이 넘었는데도 제대로 집안을 돌보지 않아 고향 마을에서 천덕꾸러기 신세였다. 그런데도 산수의 경치가 좋을 때면 자기에게 급한 일이 있다 해도 다 팽개치고 반드시 가서 구경을 하고야 말았다.¹⁸⁾

16) 〈주생전〉의 주생은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능히 시를 지을 수 있었던” 인재이고(이상구,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월인, 1999, 35쪽), 〈위경척전〉의 위생은 “타고난 자질이 총명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재주가 빼어난 인물”이며(이상구(1999), 위의 책, 68쪽.) 〈운영전〉의 김진사는 “천하의 기재(奇才)”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문재(文才)를 지녔다. (이상구(1999), 위의 책, 114쪽.) 〈상사동기〉의 김생 또한 “용모가 준수하고 글을 잘 짓는 이 세상에서 보기 어려운 남자”로 서술된다. (이상구(1999), 위의 책, 160쪽.)

17) 〈포의교집〉의 경우 남성 주인공의 부정적 인물 형상은 이미 기존의 논의에서 많이 언급되었다. 특히 주인공 이생(李生)은 시재(詩才)가 없어 초옥의 시에 화답하지 못하는 인물로, 가인(佳人)인 초옥과 비교해 우부(愚夫)의 형상으로 자리매김했다. 우부(愚夫) 이생의 모습을 언급하지 않은 논문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존 논의를 따로 정리하지는 않겠다. 다만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이생의 모습이 전기소설의 흐름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함께 논함으로써 이생의 자질 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서사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18) 湖西有李生者 簪纓族也 才疎而難容 志廣而未充 年過不惑 家業樛散 爲鄉里賤

〈포의교집〉의 남성 주인공 이생은 전대의 주인공과 달리 별다른 재주가 없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는 ‘재주가 서툴(才疎)’기 때문에 세상에 ‘받아들여지기 어려운(難容)’ 인물로, 이생이 세상에 쓰이지 못하는 이유는 그럴만한 능력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서사가 진행될수록 그에게 부족한 재능은 바로 문재(文才)였음이 나타난다. 초옥이 이생을 선망하는 이유 중 하나로 문장을 잘하는 능력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생은 초옥에게 화답시를 보낼 수도 없을 만큼 시를 짓는 능력이 부족한 인물이다. 이처럼 문재(文才)를 상실한 이생은 더 이상 전대의 작품에서 남성 주인공이 지닌 불우의 문제를 체현하지 못하게 된다. 즉 문재(文才)가 상실되면서 전기소설의 주인공이 가지고 있던 인물의 진지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문재(文才)의 상실로 인한 인물의 진지성 결여는 문재(文才)를 대체하고 있는 자질을 함께 살펴볼 때 더욱 명확해진다. 〈포의교집〉의 이생은 ‘능력도 없고 나이도 많아 천덕꾸러기로 여겨지지만 산수의 경치는 빼놓지 않고 구경하는’ 자다. 그는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고 해도 좋은 경치는 봐야 하는 유흥 지향적인 인물인 것이다. ‘때때로 동료들과 어울려 자연을 구경하며 지냈던 시가 거의 상자 하나 가득’¹⁹⁾이라는 것은 이생이 입신이나 출세의 문제를 지향하기보다 풍류와 유흥을 지향하는 인물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자신의 처지에 대한 고민 없이 놀기 좋아하는 남성 인물이 진지한 문제의식을 함의하고 있기는 어렵다.

유흥지향적인 면모의 부각으로 인해 남성 인물의 진지성이 결여되는 양상은 〈절화기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생은 준수하고 고상했으며 풍채가 빼어난데다 시나 문장도 제법 잘 했으니 당시의 재주 있는 선비였다. 그러나 그는 집안 살림을 돌보는 데는 힘쓰지 않았다.²⁰⁾

棄 每有山水之勝 雖身上緊急 必棄而往觀焉. (108쪽.) 〈포의교집〉

19) 遊洛數月 與諸僚 時翫江山述作. (108쪽.) 〈포의교집〉

〈절화기담〉의 이생의 경우 〈포의교집〉과 달리 ‘시나 문장을 제법 잘 했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 나타나는 남성 주인공의 문재(文才)를 전대의 소설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기는 어렵다. 먼저 이생의 문재(文才)에는 ‘사회적 인정’과 ‘세계에서의 쓰임’이라는 이상이 결합되어 있다. ‘재주가 있음에도 집안 살림을 돌보는 데 힘쓰지 않는’ 이생에게서 자신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하려는 소망을 찾아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절화기담〉의 이생 역시 서사 전반적으로 유흥지향적인 자질이 훨씬 더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문재(文才)에 함의된 인물의 진지성은 그 힘을 잃게 된다. 이생은 자신의 집안은 내팽개친 채 홀로 서울에 올라와 남의 집 아내와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2년여의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인물이다. 〈절화기담〉이 결국 ‘이생이 순매를 어떻게 해보려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임을 떠올려 보면 이생은 소외와 고독을 체현한 진지한 인물일 수 없다.

이처럼 초기 전기소설에서 인물의 진지성을 보장하는 문재(文才)라는 자질은 19세기에 와서는 완전히 해체되고 있다. 전기소설에서 남성 주인공이 불우한 문사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문재(文才)라는 자질을 통해 향유층과 동일시되고 있고, 이로써 인물들이 진지한 인간으로 형상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화기담〉·〈포의교집〉과 같은 19세기 애정 전기소설에서 문재(文才)의 이러한 서사적 기능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19세기 남성 인물들의 문재(文才)는 ‘세계에서의 쓰임’을 예견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역동적인 자질이 아닐뿐더러, 인물은 아예 그러한 재주를 상실한 채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재(文才)의 상실과 더불어 남성인물의 유흥지향적 면모가 부각되면서 전기소설 남성 주인공이 함의하고 있던 진지성이 결여되고 있다.

20) 生得俊雅 風彩卓異 頗解詩文 亦一代之才子也, 不事家產. (44쪽.) 〈절화기담〉

2) 미혼(未婚) 상태의 이탈과 결연의 진정성 결여

문재(文才)와 더불어 초기 전기소설 속 남성들이 가진 공통점은 바로 그들이 모두 미혼(未婚)의 상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애정 전기소설의 주요 사건이 남녀의 결연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남성 주인공이 미혼(未婚) 상태인 것은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 역시 전기소설의 장르 특성과 연결 지어 본다면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먼저 전기소설에서 ‘결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전기소설의 남성 주인공은 그 향유층과의 관련성에서 이미 불우(不遇)를 체현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들은 이상적 재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처지와 달리 작품 내적 공간 속에서 전기의 주인공들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한다. 냉정한 현실이 인정하기에 인색해 했던 그 재능이 소설 속의 공간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에게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²¹⁾ 따라서 전기소설에서 결연은 나를 알아주는 이와 만남이 가능해지는 시간이자, 인정받고자 하는 원망(願望)이 성취되는 공간이다. 전기소설에서 두 남녀의 결연에 다른 사람의 개입이 용납되지 않고, 두 남녀가 서로를 유일한 대상으로 여긴다는 점은 결연이 함의하고 있는 이러한 향유층의 욕망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전기소설 속 남성 주인공에게 결연은 한낱 지나가는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완전한 삶 그 자체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남성 인물이 미혼(未婚)의 상태에 있다는 것, 즉 미결연 상태라는 것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이를 아직 만나지 못한 불우(不遇)의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남성 주인공의 미혼에서 기혼으로의 변화는 불우의 상태와 그것의 해소라는 향유층의 소망의 전개와 그 운명을 같이 한다. 따라서 남성인물의 미혼(未婚) 상태는 전기소설에 진정성

21) 전기소설에 나타난 ‘만남’이 ‘인정받음’이라는 문인지식층의 소망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다음의 논의를 참고했다. (윤재민(1996), 앞의 논문, 357~359쪽)

있는 결연을 보장하는 자질이 된다.

그러나 19세기 작품에서는 미혼(未婚) 상태라는 자질이 사라지고 있다. 〈절화기담〉과 〈포의교집〉의 남성 주인공 모두 이미 아내가 있는 유부남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유부남이라는 표면적인 사실이 중요하다기보다 19세기의 남성 주인공들이 미혼(未婚) 상태에서 이탈함으로써 새로운 상대와의 결연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생도 그 여자의 기세를 보니, 싸늘하기가 가을 서리 같았다. 게다가 나이가 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에는 젊은 아내까지 있으니, 비록 객지에서 외롭게 지낸다고 하나 어찌 바람피울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²²⁾

그리고 이생은 생각하기를 ‘내 집에 나이 어린 아내가 있는데 또 바람을 피운다면 하늘이 미워하실 것 같구나 이를 장차 어떤다지?’²³⁾

첫 번째 예문은 이생이 초옥에게 첫눈에 반한 뒤, 당할멈과 청지기 영필 등에게 그녀에 관한 소식을 주워들은 후 하는 말이다. 이생은 자신에게 이미 어린 아내가 있음을 들며 초옥과의 만남을 ‘바람’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그에게 초옥과의 만남은 자신의 짝을 내버려두고 다른 여성과 몰래 관계를 갖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객지에서 외로움’ 또한 초옥과의 만남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이생 스스로에게 초옥과의 만남이 정당하지 않은 일탈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첫 번째 예문의 경우 이생이 아직 초옥의 마음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생이 자신의 처지가 비루해 초옥과 만나기 어려운 것을, 바람을 피워서 안 된다는 도리로 자기합리화한다고 이해해볼 수도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예문으로 인해 이러한 가

22) 李生亦看氣色，冷若秋霜，而非但年紀不少，且家有少妻，雖在旅館之寒燈，何可念及花奸哉？(112쪽.) 〈포의교집〉

23) 吾家有少妻，而又復用花奸，則神明似憎，此將奈何？(124쪽.) 〈포의교집〉

능성은 완전히 깨지고 만다. 두 번째 예문은 이생이 자신에 대한 초옥의 마음을 확인한 이후로, 초옥이 두 번에 걸쳐 보낸 시를 다 읽고 그녀와 만남을 결정하고 난 뒤에 하는 말이다. 이때도 이생은 초옥과의 만남을 어린 아내를 두고 피는 ‘바람’으로 인식하고 있다. 초옥과의 만남을 일탈로 받아들이는 처음 생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생은 이 만남을 ‘하늘이 미워하실 일’로 여기고 있다. 이생에게 초옥과의 결연은 자신의 소망이 성취되는 ‘해답’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이 걸어야 할 길에서 벗어난 ‘문젯거리’로서 자리매김한다. 이생이 나이 어린 유부녀를 가까이하려는 자신의 행동이 들통날까봐 초옥을 양파(楊婆)라²⁴⁾ 부르는 것도 그가 초옥과의 관계를 들키지 말아야 하는 것, 떳떳함이 결여된 문젯거리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성 주인공이 미혼(未婚) 상태에서 이탈하면서 결연의 진정성이 무색해지는 것은 〈절화기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절화기담〉에는 소설 앞에, 이야기의 주인공과 이 글을 윤색한 친구의 서문이 등장한다. 여기서 이미 그들이 순매와의 만남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난다.

애석하다, 만남을 가지기 전에 매섭게 끊어버리는 것이 나았을 것을! 그러나 한 번 만난 뒤에라도 관계를 끊었으니 다행스럽다 하겠다.²⁵⁾

게다가 남화자의 서문에는 내 마음을 권면하는 내용이 많으니 앞으로 옛날의 습관을 고쳐 바꾸고, 그릇된 것을 돌이켜 바른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는 내 친구가 준 선물이 아님이 없다²⁶⁾

24) 여주인공 초옥은 작품 속에서 양파(楊婆)로 불린다. 이것은 남편의 성씨인 ‘양(楊)’에 늙은 여자라는 의미의 ‘파(婆)’를 붙인 것이다. 자신의 심사를 들키지 않으려고 기껏 붙인다는 별명과 남편의 성과 상대의 나이 어림을 비틀어 늙은 여인을 뜻하는 한자를 조합한 것이라니 그 얼마나 조악한 것인가.

25) 惜乎, 莫如痛斷於未遇之前! 然, 猶幸自絕於一見之後也. (南華散人識) (39쪽.) 〈절화기담〉

작지층의 생각과 소설 속 인물의 생각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위의 서문은 〈절화기담〉의 실제 주인공이 소설에 나타난 ‘만남’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일 수밖에 없다. 먼저 이 글을 윤색한 남화산인은 이생과 순매의 만남을 ‘끊어버려야 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또한 이 둘의 결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느끼기보다 오히려 ‘관계가 끊어져 다행’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절화기담〉 남성 주인공의 실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석천주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순매와의 만남을 추구했던 자신의 행동을 ‘고쳐야 하는 옛날의 습관’으로 말하고 있다. 그에게 순매와의 결연은 ‘그릇된 것’, ‘돌이켜야 하는’ 일인 것이다. 여기서도 결연이 전대 소설이 지닌 해답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되고 문젯거리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순매와의 만남은 왜 문젯거리인 것일까? 〈절화기담〉에 나타나는 남성 인물의 결연 추구에도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순매에 대한 이생의 마음은 결연의 진정성을 보장하는 자존(自尊)의 문제와 연결되지 않는다.²⁷⁾ 그에게 순매는 성애적 욕망을 환기시키는 대상이자 일시적 유희이기 때문이다.

하루는 순매가 옅은 색의 얇은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향아리를 이고 손에는 녹로를 들고 가볍게 사뿐사뿐 우물가로 걸어왔다. 순간, 이생은 더 이상 욕정을 억제할 수 없었다.²⁸⁾

26) 且序文之易予心者，多矣，自今以往，改圖革舊，反非入是者，莫非吾友賜也。(石泉主人自序) (41쪽.) 〈절화기담〉

27) 이정원은 애정 전기소설에서 주체의 결연에 대한 태도가 절대성을 띠는 것은 그 만남이 이성애적 과정이 아니라 자존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데에서 발로된다고 했다. (이정원(2008), 앞의 논문, 303~305쪽.)

28) 一日，那梅身穿着淡裳輕裙，頭載小盆，手提轆慮，搖搖飄飄，來到井邊，于斯時也。情愈難禁，(45쪽.) 〈절화기담〉

방씨집의 여종을 할미도 잘 알고 있을 터 나를 위해 소개해 줘서 하룻밤의 인연을 맺을 수만 있다면 반드시 후하게 보상하겠네²⁹⁾

위의 예문들은 이생이 순매와의 만남을 일시적 유흥 정도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생이 순매에게 마음을 두는 이유는 오직 그녀가 환기시키는 성애적 욕망 때문이다. ‘열은 색의 치마를 입고 머리에 향아리를 이고 사뿐사뿐 우물가로 걸어오는’ 순매의 모습은 이생으로 하여금 ‘참을 수 없는 욕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이생은 중매를 하는 노파에게 그녀와의 ‘하룻밤의 인연’을 부탁하면서, 순매와 함께 밤을 보내고 싶은 자신의 욕망을 피력한다. 즉 이생에게 순매는 자신의 결핍을 충족시켜주는 완전하고 항구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순간적인 욕정을 들끓게 하는 일시적인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이생의 결연 추구는 일시적 유흥의 연장선상에 놓이게 되고 전대소설의 남성 주인공이 보여주던 결연의 진정성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포의교집〉에서와 마찬가지로 〈절화기담〉의 결연 역시 기혼자의 일탈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일탈은 다시 바로잡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처럼 미혼(未婚)의 상태에서 이탈한 남성 주인공에게서 전대 소설에 나타난 결연의 진정성을 찾기는 어렵다. 19세기 남성주인공에게서는 전대 소설에서 미혼(未婚) 상태로 형상화되었던 남성인물의 결핍이 나타나지 않고, 따라서 그들이 추구하는 만남이 ‘인정받음’이라는 자존(自尊)의 문제로 환원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연은 전대의 애정 전기소설에서 남성 주인공의 불우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가야만 하는 길’로 형상화되어 있었지만, 남성인물의 자질 변화로 인해 19세기 작품에서의 결연은 정도에서 이탈한 ‘벗어난 길’로 형상화되고 있다.

29) 方氏又贊，嫗其知之，爲我紹介，各得一宵之緣則，必重報母矣。(46쪽.) 〈절화기담〉

3. 자질 변화로 인한 새로운 관계 양상: 동상이몽의 애정

남성 주인공이 가지고 있던 인물의 진지성과 결연의 진정성이 해체되면서 19세기 작품의 애정 양상은 새로운 성격을 갖게 된다. 여기서는 남성 주인공과 여성 주인공이 각각 서로를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집중하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새로운 관계 양상이 무엇인지 살필 것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19세기 남성주인공이 문재(文才)를 상실하고 미혼(未婚) 상태에서 이탈하면서, 더 이상 전기소설의 근원적 염원인 ‘인정받고자 하는’ 소망이 발원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정받고자 하는’ 소망을 해소해주는 존재로 여성이 그려질 필요가 없다. 오히려 19세기 남성 인물의 경우 유흥지향적인 모습이 강조되면서 그들의 상대방인 여성은 술, 경치와 더불어 또 하나의 위락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다.

〈포의교집〉의 경우 남성 주인공이 보여주는 ‘초옥’을 향한 시선에는 그가 그녀를 얼마나 유락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가 드러난다.

그 가운데 갓 시집 온 새색시가 있었는데, 나이는 열 예닐곱 정도에, 얼굴이 예쁘고 태도가 고왔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산뜻하게 정리된 눈썹, 그리고 위에는 분홍빛 얇은 비단 적삼을 입고, 아래는 연푸른색 가벼운 비단 치마를 차르라니 입고 있었다. 매끄러운 검은 머리에는 금비녀를 꽂고, 하얀 비단 버선에 수놓은 당혜를 신고 있었다. (중략) 아리따운 모습은 마치 달빛 아래 버들가지가 한을 머금고 있는 듯했다. 웃을 때 살짝 보이는 보조개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여 놓을 만하고, 이름다운 눈망울을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할만 했다. 이생이 비록 여색을 탐할 나이는 지났지만 이 여자를 한 번 보자 너무도 놀랍고 그저 황홀하여 욕정을 이기지 못해 호탕한 흥이 절로 일어났다.³⁰⁾

30) 中有一美少新嫁娘, 年可十六七, 容色嬌艷, 態度嫵媚, 却嫌脂粉, 澹掃蛾眉. 上穿粉紅薄羅衫, 下垂淡碧輕紗裙, 綠雲質插金鳳, (중략) 娉婷若柳梢待月鎖恨之貌, 巧笑情兮能令人蕩, 美目盼兮能令人傷, 李生雖過貪色之崕, 一見驚奇, 十分恍惚, 不勝春情, 豪興自動. (109~110쪽.)〈포의교집〉

위는 서술자에 의해 여성주인공 ‘초옥’이 묘사되는 부분이다. 여기에 나타난 초옥의 모습을 보고 이생이 반하게 되니 결국 이는 남성 주인공의 시선에 포착된 초옥의 모습에 다름없다. 그런데 여기서 초옥에 대한 묘사는 오로지 그녀의 외모에만 치중되어 있을 뿐더러 그 정도가 과하게 느껴진다. 고전소설에서 여성 주인공을 가인(佳人)으로 형상화기 위해 외모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로 미인을 가리키는 전고를 사용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비유가 사용되면서 직접적이기보다는 관념적으로 미인의 형상이 그려진다.³¹⁾ 혹 여성 주인공의 아름다움을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초옥’의 경우처럼 지나친 묘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초옥이 입고 있는 저고리와 치마, 그녀가 머리에 꽂은 비녀와 발에 신은 버선까지 묘사되면서, 초옥의 전신이 이생의 시선에 의해 상하로 훑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이어서 장황하게 나열되는 초옥에 대한 묘사는 이생이 그녀의 외관을 천천히 탐미(耽味)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다. 이는 남성 주인공 이생에 의해 여성 주인공 초옥의 몸이 대상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심지어 이생은 이런 초옥의 모습 때문에 ‘여색을 탐할 나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욕정’과 ‘홍’이 들끓게 된다. 이생의 시선에서 포착되는 초옥은 유희를 가능하게 하는 존재, 유희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초옥이 유희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은 이생과 더불어 작품 속 다른 남성들의 공조적 시선에 의해 더욱 공고해진다. 전대의 애정 전기소설에서

31) 고전소설에 나타난 가인 형상의 방식은 다음의 논의에 잘 나타나 있다. 고소설에서 미인형상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는데, 청/홍의 색채를 통해 묘사되거나, 자연의 자질과 속성에 비유되거나, 바람직한 내면을 서술해 외면과 내면의 합일체로서 미인을 그려내는 것이다. (김문희, 「고전소설에 나타난 미인의 표상과 미의식」, 『인문학연구』 51, 인문학연구소, 2016, 101~135쪽.) 이처럼 미인은 어떤 매개를 통해 형상화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포의교집〉과 같이 여성의 몸을 탐미하는 듯한 시선은 전형적인 미인 형상의 방식이라 보기 어렵다.

여성 주인공은 오직 남성 주인공과만 조응하는 존재였다. 이것은 전기소설에서의 여성 주인공이 남성의 불우(不遇)를 해소해 주는 존재로 진정성 있는 인물로 다뤄지기 때문이다.³²⁾ 따라서 이들에 대한 타인의 시선은 개입될 수 없고, 오히려 이 닫힌 관계가 여성 주인공을 남성 주인공과 지우(知遇)의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인격적 대상으로 만든다. 오직 남성 주인공의 시선에만 포착되는 전대의 여성 주인공과 달리 ‘초옥’은 작품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남자들의 관심 대상이자 욕망의 대상이다. 이생을 포함해 남성들이 모이는 자리에 그녀는 빠질 수 없는 이야기거리이다. 특히 이들이 초옥에 대해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鞭御(편어)’, ‘裂(렬)’, ‘呑(탄)’과 같은 단어라는 점으로 미루어보아³³⁾ 그들이 초옥을 자신들이 언제든지 소유할 수 있고, 위력을 가할 수 있으며,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 주인공이 유흥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은 〈절화기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포의교집〉과 마찬가지로 남성 주인공의 시선에 포착된 순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생이 좋아서 가슴 설레며 손을 잡고 사랑스레 어루만지며 그리워하던 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리고는 곧바로 석류빛 치마를 풀어헤치고 비스듬히 원앙금침에 기대어 물끄러미 바라보니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다 표현하기가 어려웠다. 이생이 바로 수작을 걸었으나 한번 건드려도 반응이 없고 다시 불러도 가까이 오

32) 비록 그러한 여성 주인공의 형상이 결국은 향유층 남성의 욕망의 역투사일지라도, 적어도 그녀는 오락이나 유희의 대상이 아니라 남성과 지우의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인격적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33) ‘鞭御(편어)’란 ‘채찍으로 몬다’는 의미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 상대방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며, ‘裂(렬)’은 ‘찢는다’는 의미로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고, ‘呑(탄)’은 ‘삼킨다’는 의미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의도가 들어있다. (조혜란, 「〈포의교집〉 여주인공 초옥에 대한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1, 208~209쪽.)

지 않았다. 갑자기 기지개를 켜다가 놀라 깨니, 아, 한바탕 꿈에 불과했다.³⁴⁾

그리고는 치마끈을 풀고 피부는 매끄러워서 손을 놀려 더듬으니 우윳빛 젓가슴은 출렁거리고 옥 같은 피부는 매끄러워서 손에 잡히지가 않았다. 일진일퇴 어루만지고 쓰다듬으니 머리카락은 항클어지고 분 바른 뺨은 달아올랐다.³⁵⁾

첫 번째 예문은 순매에게 반한 이생이 노파로 하여금 그녀와의 만남을 중매해줄 것을 약속받은 뒤 꾸는 꿈이다. 여기에서 순매에 대한 이생의 욕망이 무엇인지가 드러난다. 꿈속에서 이생은 애가 타도록 만나고 싶었던 순매를 보자마자 그녀의 손을 부여잡고 치마를 풀어헤친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진솔한 대화의 과정은 생략하고 다짜고짜 순매의 옷부터 벗기는 것이다. 이러한 이생의 꿈은 그의 욕망이 결국 순매와 육체적 관계를 맺고 싶은 것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절화기담〉 여성 주인공은 남성 주인공의 육체적 욕망 안에서 성적 유희를 선사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한다.

두 번째 예문은 몇 차례의 어긋남 끝에 순매와 이생이 만나게 되었을 때의 일이다. 앞선 장면에서 순매는 자신이 유부녀임을 밝히며 이 만남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기다렸던 성적 유희의 대상을 눈앞에 둔 이생에게 순매의 말은 들리지 않는다. 이생은 순매의 요구에 반하는 일방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그녀를 자신의 욕망이 반영된 유희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특히 이 성애 장면 묘사에 오직 순매의 몸만이 대상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두 남녀의 애절한 정이나 욕망을 성취한 이생의 감정 따위는 언급되지 않는다. ‘우윳빛 젓가슴, 잡히지

34) 生歡甚喜極, 執手相款. 仍說破, 相思情事, 隨即解去榴裙, 斜偎鴛枕, 脉脉相看, 有情難盡. 生卽之戲焉, 一叩不應, 再喚不來, 忽欠身驚覺, 則乃南柯一夢也. 時維催唱, 孤燈明滅, 窈窕儀形, 宛在目前, 欲忘難忘, 不思自思. (50쪽.) 〈절화기담〉

35) 因解去裙帶, 弄手探戲, 酥胸蕩漾不定, 玉膚潤滑, 難試一進一退, 搏弄得千般萬回, 烏雲作歪, 粉臉暫媛, (56쪽.) 〈절화기담〉

않는 매끄러운 피부, 험클어진 머리카락, 달아오른 뺨 등 오직 순매의 벗은 몸, 이생의 손길이 닿아 반응하는 그녀의 몸이 그려질 뿐이다. 이러한 이생의 시선은 <포의교집>의 이생이 초옥의 외모를 탐미하며 그녀를 유희의 대상으로 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순매가 유희의 대상으로서 그려진다는 사실은 이생이 그녀를 떠올리는 서사적 맥락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때는 바로 늦봄 삼월 보름이었다. 곳곳에서 예전 난정에서의 모임을 기억하며 사람들마다 시를 읊조리면서 옛사람들의 풍류를 따라했다. 이에 임금님은 대신들과 여러 신하들을 명하여 궁궐에서 꽃과 버드나무를 감상하며 즐기도록 하였고 물시계가 한 번 울린 뒤에도 야간통행을 금하지 않아서 온 성안의 남녀들이 몹시 즐거워하며 구경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이생도 두세 명의 벗들과 함께 흥이 나서 달빛을 받으며 주막에서 술을 마셨는데, 제5교 입구에는 달빛이 대낮처럼 환히 비추고, 상림원에서는 아름다운 음악이 잇달아 연주되고 있었다. 이런 경치를 대하자 이생은 마음이 동하여 순매 생각을 떨치기가 어려웠다.³⁶⁾

이 날은 바로 사월 초파일이었다. 집집마다 밝힌 등불이 온 마을에 밝게 비치고 수부 소리가 다투어 울렸다. 왕손의 흰 말은 저물녘에 무리를 지어 몰려다니며 놀고 젊은 남녀들은 서울 거리로 모여들었다. (중략) 이생이 벗들을 불러 종소리도 듣고 연등도 구경하며 이리저리 거닐며 돌아다녔다. 그런데 갑자기 순매가 생각나서 곧바로 노파를 찾아갔다.³⁷⁾

36) 是時正三月暮春之望日也線柳枝頭，黃鶯喚友，紅杏花上，白蝶紛飛。處處的蘭亭故事，人人味歸遺風。於是，上命閣臣諸臣，賞花漸柳於禁苑，玉漏初下，夜巡無禁，滿城上女，無小聳喜觀瞻。生與三三諸益，乘輿帶月，時飲酒樓，第九橋頭，月色如畫，上林苑上，仙樂迭奏，生對景關梢，一心難忘。(68~69쪽.)〈절화기담〉

37) 是日即夏四月初八日也，萬戶燈火，齊明千村，水擊手鳴。王孫白馬，黃昏邊隊隊遊戲，士女青衫，紫陌頭翩翩來會，(正所謂君樂臣樂，永樂萬年，明月燈明，天地同明者也。)生呼朋喚友，聽鍾觀燈，徘徊逍遙。忽思梅女，逕尋老嫗而來。(91~92쪽.)〈절화기담〉

〈절화기담〉의 배경이 되는 18세기 말의 한양이 향락과 축제의 공간이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³⁸⁾ 중요한 것은 〈절화기담〉에 나타난 유흥지향적인 분위기가 이생으로 하여금 순매를 환기하는 장치로 나타나는 사실이다. 이생은 당시 한양에 실제 했던 난정수계를 모방한 행사와 초파일의 연등회에 빠짐없이 참가하면서³⁹⁾ 도시의 축제를 마음껏 누린다. ‘서울 거리를 메운 젊은 남녀들, 저물녘에 낭랑거리는 달빛, 술과 벗’은 이생의 흥취를 점점 고조시킨다. 그런데 도시의 유흥을 만끽하던 이생은 그 끝에 갑자기 순매를 떠올린다. 이생이 순매를 떠올리는 것은 그녀를 떠올리게 할 만한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다. 이생은 오직 도시의 유흥지향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순매를 떠올리게 된다.⁴⁰⁾ 이는 순매가 이생이 소비하는 유흥과 오락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에게 그녀는 향락지향적인 분위기 속에 환기되는 유흥의 대상에 다름없다.

〈포의교집〉의 초옥이나 〈절화기담〉의 순매 역시 남성주인공과 마찬가지로 유부녀이다. 그렇다면 그녀들의 결연도 결국은 한 순간의 일탈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그녀들도 상대방을 그저 그런 유흥의 대상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그녀들이 추구하는 결연에는 어떤 지향성이 내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그녀들이 남성 인물과

38) 〈절화기담〉과 〈포의교집〉 등에 재현된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중반의 한양의 모습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논의에서 지적된 바 있다. 이들 논의에서는 실제적 공간으로서 조선 후기의 한양이 시장 경제의 중심지인 도시로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러한 변화로 인해 한양이 유흥과 향락의 색채를 띤다고 이야기했다. 나아가 이런 공간의 특성을 두 작품에 나타난 사랑의 방식과 연결하고 있다. 관련 논의는 다음과 같다. (김문희, 「절화기담과 포의교집에 재현된 한양과 사랑의 의미」, 『서강인문논총』 26,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5~32쪽. 신경남, 「조선후기 애정소설의 생활사적 연구」, 가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1~268쪽.)

39) 두 모임에 대한 역사적 근거는 김문희(2009), 위의 논문, 10~13쪽. 신경남(2018), 위의 논문, 55~59쪽에 자세히 나와 있다.

40) 김문희(2009), 위의 논문, 9쪽.

마찬가지로 미혼(未婚)의 상태에서 이탈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로 인해 결연의 진정성을 상실한 남성 인물과 달리 여성 인물의 변화는 표면적일 뿐이다. 기혼자인 그녀들은 여전히 ‘나를 알아주는 이’를 만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뿐더러, 무엇보다 이 상태를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포의교집〉의 초옥과 〈절화기담〉의 순매는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대의 소설에서 미결연 상태가 함의하고 있는 결핍을 여전히 체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녀들의 결연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인식은 남성 주인공의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초옥과 순매는 모두 세계의 폭력에 노출된 존재이다. 그런데 그 폭력은 자신이 생각하는 형태로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궁 밖에 살던 한 미소년이 저 여자의 아름다움을 사모해서 몰래 만나보고 싶어 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았지요. 소년이 그 때문에 병이 나서 다 죽게 되자 그 부모가 저 여자를 불러서 간절하게 부탁했는데도 끝내 들어주지 않아 소년은 그만 죽고 말았는데 그 혼이 한 늙은 궁녀에게 붙자 그 늙은 궁녀가 미쳐서 밤낮으로 저 여자를 차고 때렸답니다.⁴¹⁾

초옥은 본래 남영위궁의 시녀였고 그 안에서 재주를 인정받아 시재(詩才)를 갖고 닦는 여인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무자비한 폭력에 노출되게 된다. 늙은 궁녀가 그녀를 차고 때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사랑’의 문제로 회귀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초옥의 아름다움을 보고 한 눈에 반한 미소년이 있었지만 그녀는 그를 받아주지 않았고, 끝내 미소년이 죽게 되자 그 혼이 늙은 궁녀에게 붙어 초옥을 구타했다는 것이다. 초옥이 처음으로 세계의 폭력에 노출되는 것은 바로 그녀를 향한

41) 宮外一美童, 慕其姿色, 欲爲偷窺, 彼娘不聽. 厥童因此成病將死, 童之父母, 呼而亟請, 彼娘終不聽從, 以致厥童之死. 其魂付于一宮嫗, 成狂, 晝夜毆打. (111쪽.)
〈포의교집〉

일방적인 '사랑' 때문이다. 초옥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사랑, 즉 초옥이 바라지 않은 사랑은 그녀에게 폭력으로 되 돌아온다.

초옥이 양씨에게 속량을 받아 그의 아들과 결혼한 뒤에도 그녀가 원하는 형태의 사랑은 실현되지 않는다. 그녀가 원한 사랑의 형태는 '문장을 잘하는 선비를 만나 밤낮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일생을 보내는 것이었다. 즉 초옥은 쌍방 간에 소통을 전제로 한 인격적인 만남을 진정한 사랑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⁴²⁾ 그러나 그의 남편은 이런 초옥의 소망을 실현시켜줄 존재가 아닐뿐더러 오히려 초옥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 자로 그려지고 있다.⁴³⁾

이처럼 초옥이 노출된 세계의 폭력은 그녀가 원하는 사랑의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 초옥이 유부녀임에도 다른 결연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폭력에서 탈출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그녀에게 다른 남자와의 만남은 남성 주인공과 같이 이성애적 과정이 아니라 '인정받음'을 가능하게 하는 자존(自尊)의 과정이 된다.⁴⁴⁾ 초옥에게 이생은 일탈과 유흥의 대상인 '문젯거리'가 아니라 자신의 결핍을 해소시켜줄 '해답'인 것이다. 여성 주인공의 결연과 그 상대방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은 〈절화기담〉의 순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42) 초옥의 이러한 지향은 기존 논의에서도 여럿 지적된 바 있다. 특히 조혜란은 초옥이 자기애에 기반한 인격적 만남을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옥이 남녀의 만남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는 주로 '交, 相交, 知, 知己, 知遇, 布衣之交' 인데, 이 단어들이 모두 쌍방 간에 동등한 관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녀가 지향하는 사랑의 형태가 무엇인지 드러난다는 것이다.(조혜란(2001), 앞의 논문, 208~210쪽.) 여기서는 이러한 초옥의 지향이 결국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특히 이것이 전기소설에 나타나는 '사랑받음' 주인공의 양식이 체현한 불우, 세계의 폭력이라고 보았다.

43) 물론 초옥이 유부남과의 바람이라는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고 하지만, 작품에 묘사된 남편의 폭력은 지나치게 가혹적이라는 점에서 초옥의 부도덕한 행위만으로 해명되지 않는다.

44) 이정원(2008), 앞의 논문, 305쪽.

이 몸은 형편상 자유롭지 못합니다. 연약한 몸으로 용렬한 사람의 아내가 되어 비록 잠간은 즐거웠지만 늘 타고난 운명에 대해 탄식하다가 한 번 낭군의 사랑을 받은 뒤로는 오로지 낭군을 섬기고 싶은 마음뿐 남편을 섬길 마음은 조금도 없어졌습니다.⁴⁵⁾

〈절화기담〉의 순매 또한 이미 결혼을 한 유부녀이지만 초옥과 마찬가지로 그녀에게 결연은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결핍의 상태이다. 순매는 변변치 못한 사람을 만난 자신의 운명에 대해 탄식하는 인물이다. 〈포의교집〉에서와 같이 남편의 난폭한 행동이 묘사되지는 않지만 그녀의 남편은 술에 취해 미친 듯이 술주정을 하는 사나운 자로 순매로 하여금 결혼 생활을 불만족스럽게 느끼게 한다.⁴⁶⁾ 즉 기혼의 상태와 상관없이 순매는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는 인물인 것이다. 그런 그녀로 하여금 이생의 전폭적인 애정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느낌이 들게 했을 것이다. 망설임 끝에 순매가 이생을 만나게 되는 것은 결국 이러한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세계의 폭력에서 탈출하려는 움직임이다. 초옥과 비교하면 순매의 움직임이 소극적이기는 하나⁴⁷⁾ 이러한 결연 지향성을 지닌 그녀에게도 남성 주인공은 단순히 일탈과 유흥의 대상일 수 없다.

19세기 작품에서 남녀 주인공은 모두 유부남 유부녀이다. 그러나 기혼(未婚) 상태로의 변화가 인물이 처한 문제 상황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45) 而一身之不得自由, 勢所然也. 蒲柳之質, 配效但噲, 雖暫爲歡, 每切賦命之歎. 一自見愛郎君之後, 惟有事齊之誠, 頓無事楚之心. (63쪽.)〈절화기담〉

46) 순매의 만남의 동기가 폭력적인 남편 때문이라는 점은 다음의 논의와 시각을 같이 한다.(조혜란, 「19세기 애정소설의 새로운 양상 고찰」, 『국어국문학』 135, 국어국문학회, 2003, 283~284쪽.)

47) 이런 의미에서 순매 행동도 모두 일탈적이고 일회적이라고 보는 논문이 있다.(양혜승, 「〈절화기담〉·〈포의교집〉에 나타난 애정 세태의 양상」, 『동남어문논집』 44, 동남어문학회, 2017, 270쪽.) 그러나 이것은 그녀가 처한 현실 때문이지 그녀의 지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뒤에서 더 언급되겠지만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생과의 만남이라는 순매의 그 욕망이 어디서 발현되느냐에 주목했다.

따라 결연의 지향성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남성 인물의 경우 더 이상 불우(不遇)의 문제를 지닌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결연은 단지 일탈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결연의 상대방인 여성은 그들의 이성애적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오락적인 대상에 머무르고 만다. 반면 여성 인물의 경우 미혼(未婚) 상태를 이탈하기는 하지만 전대 소설에서 미혼(未婚) 자질이 함의하고 있던 ‘인정받지 못함’이라는 결핍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오히려 자신의 남편이 그녀들의 결핍을 만들어내는 존재라는 점에서 그녀들에게 기혼의 상태는 하나의 폭력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그녀들에게 결연은 일탈이 아니라 자신들이 처한 폭력으로부터 탈출하려는 해소의 과정이다. 따라서 여성 인물의 상대방에 대한 인식은 남성의 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는다. 서로에 대한 상이한 인식 때문에 19세기 애정 전기소설에서 남녀 인물의 애정 양상은 동상이몽의 성격을 갖게 된다.⁴⁸⁾

4. 19세기 애정 전기소설의 의미 - ‘불일치’의 현상과 여성의 자의식

앞의 논의들을 통해 남성자질의 변화 그리고 이로 인한 작품 내 새로운 양상을 살펴본 바, 19세기 애정 전기소설은 한 마디로 ‘불일치’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절화기담〉과 〈포의교집〉은 애정 전기소설의 주요 모티프인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지만 사랑의 대상과 사랑의 방식이⁴⁹⁾ 모두

48) 〈절화기담〉·〈포의교집〉에 나타나는 남녀 주인공의 사랑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은 기존 논의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본 논의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전기소설 문법의 해체 과정(남성자질의 변화)에서 나타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결연과 상대방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낳게 하면서 19세기 애정 전기소설만의 ‘동상이몽의 애정 양상’이라는 새로운 문법을 도출한다고 보는 점에서 차별점을 가진다.

49) 사랑의 방식과 사랑의 대상이라는 개념은 다음의 논의를 참고했다. (엄태웅, 「17세기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절화기담〉과 〈포의교집〉에는 다양한 층위에서의 불일치가 반복되고 있다. 먼저 사랑의 대상으로서 두 남녀의 성격이 매우 다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두 남녀 주인공은 결핍을 가진 인물과 그렇지 않은 인물이라는 점에서 일치하지 않는다. 여성 주인공은 불만족스러운 결연 상대로 인해 세계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세계와 대립하는 자아인 반면 남자주인공에게는 세계와의 대립이 나타나지 않는다. 소설 속에서 남성 주인공은 상층의 인물인 반면 여성주인공은 하층의 인물이라는 점을 떠올려보면 이러한 불일치는 매우 흥미롭다. 상층 남성의 결핍을 이야기하고 있던 전기소설이 19세기에 와서는 하층 여성의 결핍에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의 대상이 되는 남녀 주인공의 성격이 다르다보니 사랑의 방식도 불일치할 수밖에 없다. 주지했듯이 남성 주인공의 경우 진정성이 결여된 일시적 유흥으로서 만남을 추구하는데 반해 여성 주인공의 경우 자신의 만남에 대한 이유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두 남녀는 ‘문제의식의 전이’라는 측면에서 전혀 다른 사랑의 방식을 보여준다. 여성 주인공은 비록 그것이 일회적이거나 착각이었을지라도 남성 주인공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들의 문제 상황을 자신의 것으로 전이시키고 있다.⁵⁰⁾ 그러나 남성

전기소설에 나타난 남녀 관계의 변모 양상, 『한문학논집』 29, 한국한문학회, 2009, 133~162쪽.) 여기서는 17세기 전기소설의 계승과 변모를 ‘사랑의 방식’과 ‘사랑의 대상’의 변화로 이해했다. 이때 ‘사랑의 방식’은 전기소설에 나타나는 남녀 간 사랑의 방식이 어떠한 형태로 변화하는가를 말하고, ‘사랑의 대상’은 남녀 주인공의 신분적·현실적 처지를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남성주인공의 변화와 이로 인한 새로운 관계에 주목하고 있는데 결국 이 새로운 관계가 사랑의 대상과 방식의 변화와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엄태웅의 논의를 참고하였다.

50) 순매의 경우 이생의 일방적인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그를 만나 그의 애 닳은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한다. 또한 초옥의 경우 자신을 꽃에 비유하며 이생과 자신이 같은 처지에 있음을 강조한다. 즉 두 여성인물의 경우 남성주인공의 문제 상황을 자신의 문제로 전이시키면서 동일시를 이뤄내고 있는 것이다.

주인공에게서는 그것을 발견하기 어렵다. 아래의 예문이 이를 잘 보여준다.

순매가 자리에서 한숨을 쉬고는 말했다. “제 팔자가 기구하고 힘해서 남편이란 자가 착하지 않습니다. 명색이 부부지, 사실 원수지요. 말만 하면 어긋나고 움직일라 치면 헐뜯기만 합니다.” (중략)

‘속담에도 준마는 어리석은 사람을 태우고 가고 미인은 늘 못난 남자와 짝이 되어 잠든다고 했다. 이런 까닭에 예쁜 여자는 예로부터 재앙을 부르고 미인은 본래부터 박명한 것이지. 지금 와서 비록 한탄해도 이미 어쩔 수가 없구나. 내 너와 더불어 틈을 타서 즐거움을 맛보는 것 또한 아름답지 않은가?’⁵¹⁾

〈절화기담〉에서 마침내 이생과 순매의 만남이 성사된 뒤, 순매는 참아왔던 자신의 불우함을 이생에게 토로한다. 자기가 처한 현실의 질곡을 이생에게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생은 이러한 순매의 문제 상황을 자신의 것으로 전이시키지 못한다. 이생은 ‘원래 미인은 늘 못난 남자와 짝이 되고, 예쁜 여자는 재앙을 부른다며’ 허울만 근사한 위로를 하고 있다. 〈절화기담〉의 이생은 순매의 문제 상황을 자신의 것으로 전이시키지 못하면서 그녀의 불우에 공감하지 못한다. 이는 〈포의교집〉의 이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자신과의 만남 때문에 남편에게 초옥이 두드려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생은 잠시 그녀의 안위를 걱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당할뎌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에 대한 반응일 뿐, 여기에 초옥의 감정이나 고난에 대한 공감은 나타나지 않는다. 즉 이생에게 그녀의 문제는 그녀의 것일 뿐 자신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19세기 애정 전기소설의

51) 那梅於枕上，啼噓歎日，妾賦命奇險，所天無良，名雖夫婦，情實吳·越，言必矛盾，動輒訛謬，非不知恩義之爲重，情愛之必篤。(중략) 語云駿馬却馱痴漢去，美人常伴拙夫眠。是故，蛾眉自古招殃，紅顏原來薄命。今雖恨歎，已無可及。吾與汝，乘間偷樂，亦不美哉! (88~89쪽.) 〈절화기담〉

두 남녀는 ‘문제의식의 전이’라는 차원에서 또 한 번의 불일치를 보여준다.

〈절화기담〉과 〈포의교집〉의 서사가 각각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약속과 어긋남⁵²⁾을 보여주고, 망설임과 서슴지 않음을 보여주면서 착각과 깨달음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 이러한 ‘불일치’가 반복되는 데서 오는 서사 구조라 하겠다.

특히 이러한 ‘불일치’의 현상은 전대의 전기소설과 비교해 주목할 만하다. 전대의 소설에서 두 남녀주인공은 나의 문제가 곧 상대방의 문제였다. 남성 주인공의 외로움은 곧 여성 주인공의 외로움이고 따라서 그들은 서로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였으며 같은 길을 가는 존재였다. 전기소설을 탄생시킨 향유층의 문제가 결국 ‘불일치’의 문제였기 때문에 전기소설에 각인된 이야기의 방식은 ‘일치’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전대의 소설에서 두 남녀 주인공은 마치 꼬아진 동아줄처럼 함께 나아간다. 귀녀의 죽음 이후 세상을 등지고 돌아서는 남자주인공의 결말은 두 남녀 주인공의 운명이 동일 궤도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19세기 애정 전기소설은 다양한 층위의 어긋남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전대의 소설에서 동일 궤도에 놓여있던 남녀주인공은 절대 만날 수 없는 평행선에 서 있게 된다.

19세기 애정 전기소설에 나타난 ‘불일치’ 현상과 관련해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은 바로 여성의 자의식이다. 19세기 애정 전기소설이 ‘불일치’를 지향하게 되면서 남성 주인공과 달리 자신이 마주한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연을 추구했던 여성인물들은 결국 그 결핍을 해소하지 못하고 좌절하게 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불일치’의 현상을 통해서 전대의 애정 전기소설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웠던 소설적 진실이 발견된다. 바로 하층 여성의 자의식과 소외의 문제가 그것이다.⁵³⁾

52) 정길수, 「〈折花奇談〉 연구: 19세기 愛情傳奇 傳統의 繼承과 變容」,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9, 54쪽 참조.

53) 물론 17세기의 애정 전기소설에서 이미 여성의 자의식을 발견할 수 있다. 〈운영전〉의

초옥과 순매는 모두 절의를 지키던 인물로 그려진다. 동곡에 사는 방진 사는 재산으로, 묘동에 사는 이상공은 풍류로 순매를 만나고자 했지만 이루어진 적이 없다. 초옥도 다른 이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말도 섞지 않는 도도한 인물이다. 이러한 그녀들의 성품은 ‘다른 이와 사랑’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자신이 체현한 폭력에 대한 대항이었음을 반증한다. 다음과 같은 초옥의 말은 그녀가 자신의 처지와 그 한계를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가 꽃을 애석해하는 마음을 아실런지요? (중략) 이 꽃의 연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하고픈 마음이 일게 하지요. 그러나 궁궐에 가면 귀공자와 왕손의 눈길을 받을 것이요, 권세가에 나면 유명하고 벼슬 높은 이들의 사랑을 받을 것이나, 여항에 나면 시골 아이, 떠꺼머리 목동에게 꺾이게 되겠지요. 똑같은 아름다운 향으로 어떤 것은 귀한 이의 사랑을 받고 어떤 것은 시골 목동의 사랑을 받으니 이 어찌 태어난 처지가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⁵⁴⁾

‘똑같이 아름다운 향을 지니고 태어났지만 어떤 것은 귀한 이의 사랑을 받고 어떤 것은 그렇지 못하는 꽃’, 초옥은 자신과 그 꽃을 동일시하고 있다. 초옥의 결함은 그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세계로부터 기인한다. 그리고 그녀는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자의식은 순매에게도 동일

운영과 같은 인물이 그러한 예이다. 그러나 운영은 자신이 체현한 세계의 폭력에서 탈출하기 위해 사랑을 추구하기보다 사랑을 추구함으로써 자신이 마주한 현실의 벽을 깨닫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점에서 〈주생전〉의 배도는 19세기 애정 전기소설 여성인물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때 〈주생전〉의 ‘주생’이 전기소설의 문법에서 많이 벗어난 남자주인공임을 떠올려 보면 이는 본고의 논의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54) 此花嫩紅芳姿, 令人可愛, 而生乎宮苑, 則必爲公子王孫之賞; 生乎戚里, 則必爲名公巨卿之娛; 生乎閭巷, 則必爲村童牧豎之折也, 同是芳香, 而或爲貴人之愛, 或爲村牧之愛, 宜非所生之地異耶? 是以可惜也, 人之。(115~116쪽.) <포의교집>

하게 발견된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형편상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타고난 운명에 대해 늘 탄식하는 인물이다. 결국 순매가 마주한 ‘형편’과 ‘타고난 운명’은 초옥과 마찬가지로 세계로부터 기인한 결함인 것이다. 이처럼 19세기 애정 전기소설의 여성인물은 조선 사회의 현실에 속박되었던 여성 하위주체의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각성⁵⁵⁾이라는 분명한 자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순매가 현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늘 불안해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고⁵⁶⁾, 또 초옥이 착각 속에서 지나치게 맹목적인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자의식은 한계를 지닌다. 특히 순매의 경우 이생과의 밀고 당기기를 통해 일회적 사랑을 한 후 본래 자리로 회귀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⁵⁷⁾ 결연의 진정성을 의심받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녀들의 지향에는 분명한 자의식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특히 이는 남성의 지배적 시선이 더 이상 여성의 상황을 조작하고 미화할 수 없게 되는 지점에서⁵⁸⁾ 발생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순매와 초옥이 자신이 마주한 세계의 폭력을 인식하고 나름대로의 대항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19세기 애정 전기소설에서 여성인물에게 ‘선택의 여지’가 주어진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전대의 소설은 ‘일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 주인공에 대한 여성 주인공의 거절’은 서사화될 수 없는 문제였다. 그러나 19세기 애정 전기소설에서 여성인물은 때

55) 신상필, 「19세기 애정 세태서사에 수렴된 하위주체의 욕망과 그 의미」, 『한국문학연구』 63, 한국문학회, 2020, 90쪽.

56) 순매와 초옥의 이러한 일탈(다른 이와는 만남 추구)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그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하였다. 박길희, 「19세기 소설에 등장하는 하층여성의 일탈과 그 의미」, 『배달말』 57, 배달말학회, 2015, 131~160쪽.

57) 양혜승, 「〈절화기담〉·〈포의교집〉에 나타난 애정 세태의 양상」, 『동남어문논집』 44, 동남어문학회, 2017, 269~270쪽.

58) 윤채근, 「절화기담에 나타나는 환유적 사랑」, 『한국고전연구』 8, 한국고전연구학회, 2002, 175쪽.

로는 ‘동의’를 할 수 있는 존재 혹은 ‘거절’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난다. 순매는 이생의 애정에 바로 답하는 인물이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현실에 비추어 스스로의 행위를 가늠한다. 순매가 타인의 시선 때문에 이생과의 약속을 어기는 그녀의 한계를 보여주기에 앞서 그녀가 자신의 안위를 생각 하며 상대방과의 만남을 선택할 수 있는 인물임을 보여준다. 이는 초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비록 착각에 의한 것이었지만 전폭적으로 이생을 사랑하는 것과, 이후 이생의 진실을 알게 되자 가차 없이 그를 떠나는 것도 모두 그녀의 선택이다. 〈절화기담〉과 〈포의교집〉의 이야기가 끝을 맞게 되는 이유도 순매와 초옥이 더 이상 남자주인공을 만나지 않겠다고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19세기 애정 전기소설에서 여성 주인공의 자의식에 기반한 ‘그녀들의 선택’은 서사를 추동하는 기제임에 분명하다. 물론 19세기 애정 전기소설에 나타나는 여성의 자의식과 소외가 작품의 심층적인 문제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이들을 포착하는 서술자의 시선이⁵⁹⁾ 그들의 문제를 양각화하고 있지 않고, 그녀들의 선택의 기준에는 여전히 ‘고전적’인 이념이⁶⁰⁾ 배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작품에 여성의 자의식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대의 전기소설의 작동태였던 남성 인물의 자질이 변화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관계가 창출되면서 여성 주인공은 남녀 주인공과 모든 면에서 ‘불일치’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어긋남 속에서 기존의 여성 주인공에게는 찾

59) 이정원은 〈포의교집〉의 서술자가 초옥의 실패 사건에 주목할 뿐 실패 구조에 주목하지 않으면서 초옥의 욕망의 관념성을 배태하는 사회 구조의 모순을 끄집어내지 않고 있다고 보았다. (이정원(2008), 앞의 논문, 312쪽.)

60) 이월영은 〈포의교집〉의 초옥의 인생목표인 ‘布衣之交’과 남성중심의 이념임을 지적하면서, 그녀의 행위를 남성중심 이념으로 자신존재의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월영, 「포의교집 연구」, 『한국언어문학』 67, 한국언어문화학회, 2008, 273~298쪽.) 순매의 경우는 인생의 목표가 고전적 이념을 배태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 그녀가 자신의 남편으로 회귀하는 것, 절개와 절의를 운운하며 이생과의 거리를 두는 것은 모두 당시 사회가 요구하던 ‘고전적’ 이념과 맥을 같이 한다.

아볼 수 없던 이별이라는 선택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19세기 애정 전기소설의 의미는 사랑을 서사적으로 형상화하는 방법으로서 ‘불일치’의 양식을 추구하고 그 안에서 여성 자의식의 문제를 받아시켰다는 데 있다.

5. 나가며

〈절화기담〉과 〈포의교집〉으로 대표되는 19세기 작품이 기존 애정 전기소설의 문법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두 작품의 장르 귀속 문제는 중요한 논쟁거리였다. 그러나 ‘장르론’의 핵심은 작품의 분류에 있지 않다. 장르론은 그 작품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하나의 길라잡이가 되어줄 때 진정한 의의를 지닌다. 즉 장르 문제가 〈절화기담〉과 〈포의교집〉의 서사적 의미를 포착하는 데 효용이 있으려면, 이 두 작품을 어떤 장르에 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장르로부터 끄집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 ‘남성 주인공의 자질’을 다시 한번 장르사적 맥락에서 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정리해보면, 전대 애정 전기소설에서 남성 주인공 대부분이 가지고 있던 자질이 19세기 작품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문재(文才)의 상실과 미혼(未婚) 상태의 이탈이라는 자질의 변화는 기존 애정 전기소설이 가지고 있던 중요한 장르적 함의들을 해체하는 데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기존과는 전혀 다른 동상이몽의 사랑이라는 새로운 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불일치’의 연속이라는 새로운 사랑의 방식이 탄생하게 된다.

이상의 논의는 아직 보완될 점이 많다. 〈절화기담〉과 〈포의교집〉의 차이나, ‘불일치 현상’ 등을 탄생시키는 데 기여한 서사 외적 요인이 좀 더 세밀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겠다. 또한 전대 소설의 범위가 매우 큰 탓에

각 편들이 꼼꼼하게 다뤄지지 못했다. 이 글의 이러한 미약함은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된 기존 연구들이 보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 논의의 문제의식과 기존의 연구성과를 통해 19세기 애정 전기소설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분명해지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참고문헌

- 김경미·조혜란 역주, 『19세기 서울의 사랑-절화기담, 포의교집』, 도서출판 여이연, 2003, 1~255쪽.
- 이상구 역주, 『17세기 애정 전기소설』, 월인, 1999, 1~338쪽.
- 강상순, 「고소설에서 재자의 형상과 그 변화 양상 - 17세기 소설사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7, 179~206쪽.
- 권도경, 「포의교집의 애정 갈등과 비극적 결말의 현실적 의미」, 『조선후기 전기소설사의 전변과 새로운 시각』, 보고사, 2004, 1~478쪽.
- 김문희, 「절화기담과 포의교집에 재현된 한양과 사랑의 의미」, 『서강인문논총』 26,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5~32쪽.
- 김문희, 「고전소설에 나타난 미인의 표상과 미의식」, 『인문학연구』 51, 인문학연구소, 2016, 101~135쪽.
- 김민정, 「남성인물을 중심으로 본 애정전기소설의 흐름」, 『우리문학연구』 39, 우리문화회, 2013, 41~87쪽.
- 김정숙, 「포의교집의 소설적 특징 연구」, 『한문교육연구』 16, 한국한문교육학회, 2001, 399~416쪽.
- 김종철, 「傳奇小説의 전개 양상과 그 특성」, 『민족문화연구』 2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5, 31~52쪽.
- 박길희, 「19세기 소설에 등장하는 하층여성의 일탈과 그 의미」, 『배달말』 57, 배달말학회, 2015, 131~160쪽.
- 박길희, 「고전소설에 나타난 여성들의知己와 그 의미」, 『고전과 해석』 25, 2018, 155~183쪽.
- 박일용, 「傳奇系小説의 양식적 특징과 그 소설사적 변모 양상」, 『민족문화연구』 2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5, 69~91쪽.
- 박희병, 「한국고전소설의 발생 및 발전단계를 둘러싼 몇몇 문제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17,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2, 31~53쪽.
- 박희병, 「전기적 인간의 미적 특질」, 『민족문학사연구』 7,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1995, 120~140쪽.
- 신경남, 「조선후기 애정소설의 생활사적 연구」, 가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1~268쪽.
- 신상필, 「19세기 애정 세태서사에 수렴된 하위주체의 욕망과 그 의미」, 『한국

- 문학연구』 63, 한국문학회, 2020, 77~109쪽.
- 신재홍, 「초기 한문소설집의 전기성에 관한 반성적 고찰」, 『관악어문연구』 14,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9, 129~151쪽.
- 양혜승, 「〈절화기담〉·〈포의교집〉에 나타난 애정 세태의 양상」, 『동남어문논집』 44, 동남어문학회, 2017, 259~283쪽.
- 엄태웅, 「17세기 전기소설에 나타난 남녀 관계의 변모 양상」, 『한문학논집』 29, 한국한문학회, 2009, 133~162쪽.
- 윤재민, 「傳奇小說의 인물 성격」, 『민족문화연구』 2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5, 53~67쪽.
- 윤재민, 「전기소설의 성격」, 『한국한문학연구』 19, 한국한문학회, 1996, 333~367쪽.
- 윤채근, 「절화기담에 나타나는 환유적 사랑」, 『한국고전연구』 8, 한국고전연구학회, 2002, 163~182쪽.
- 이월영, 「포의교집 연구」, 『한국언어문학』 67, 한국언어문학회, 2008, 273~298쪽.
- 이유정, 「〈포의교집〉 남성주인공 이생에 관한 연구」, 『한국어와 문화』 12, 한국어문화연구소, 2012, 3~35쪽.
- 이정원, 「조선조 애정 전기소설의 소설 시학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1~187쪽.
- 이정원, 「포의교집의 서사적 성격-애정전기소설 양식론의 입장에서」, 『어문논집』 36,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8, 297~317쪽.
- 임형택, 「나말여초의 전기문학」, 『한국한문학연구』 5, 한국한문학회, 1980, 89~104쪽.
- 정길수, 「〈折花奇談〉 연구: 19세기 愛情傳奇 傳統의 繼承과 變容」,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1~107쪽.
- 조혜란, 「〈포의교집〉 여주인공 초옥에 대한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1, 189~223쪽.
- 조혜란, 「19세기 애정소설의 새로운 양상 고찰」, 『국어국문학』 135, 국어국문학회, 2003, 279~306쪽.
- 한의승, 「포의교집의 문체와 서사적 특징」, 『어문논총』 41, 한국문학언어학회, 2004, 397~436쪽.
- 한의승, 「18~19세기 전기소설의 인물형상 재고」, 『대동한문학』 58, 대동한문학회, 2019, 217~244쪽.

ABSTRACT

Changes in the qualities of the male protagonist and Its narrative meaning in Love Romance(愛情傳奇小說)

Im, Jeong-min

This paper focuses on two representative works of nineteenth-century Love Romance(愛情傳奇小說), 〈Jeolhwagidam〉 and 〈Pouigyojib〉, to examine the changes in the male protagonists' qualities and their narrative significance. In these works, the qualities of 'literary talent' and 'unmarriedness' that were common to the male protagonists of previous biographical novels are not found. This completely dismantles the meanings of 'seriousness of character' and 'authenticity of marriage' that these qualities implied respectively. Furthermore, this change in qualities changes the context in which men and women perceive each other as objects of affection, resulting in a new relationship pattern of love. While the male protagonist sees the object of his love as an object of deviant entertainment, the female protagonist sees it as a way to escape from the violence she has been subjected to, and sees the other as an object of serious encounter. In this way, the 19th century works repeat the phenomenon of 'inconsistency' on various levels, including the object and method of love. Meanwhile, the female protagonist has a previously unexplored option of separation through this discrepancy. This is very interesting because it gives us a glimpse into women's self-consciousness.

Key Words

19th-century Love Romance(愛情傳奇小說), the changes in the qualities of characters, sincerity of character, sincerity of union, inconsistency, female self-consciousness

논문투고일: 2023.04.15.

심사완료일: 2023.04.30.

게재확정일: 2023.05.04.